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답안을 작성할 것.

감독확인
------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국가 자체도 수많은 내부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견잡을 수 없이 비대해진 조직체가 되어 있다. 이 조직체는 지금 가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자기가 쳐 놓은 덩어리에 자기가 걸린 상태에 있으며, 사치와 무모한 낭비, 그리고 치밀한 계산과 보람된 목적의 결여로 파산 상태에까지 와 있다. <중략>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사람들도 국가가 사업하고 열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하며 한 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이 원숭이처럼 살아야 하는지, 또는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침목을 잘라 오고 쇠를 불려 레일을 만들며 밤낮으로 일에 몰두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개선한답시고 인생을 주물럭거리고만 있으면, 누가 철도를 건설할 겁니까? 그리고 만약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면, 때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긴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앉아 우리 일에만 전념한다면 누가 철도를 필요로 하겠는가? 사람이 철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다. 실은 철로가 사람 위를 달리는 것이다. 철로 밑에 깔린 침목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침목 하나하나가 사람인 것이다. 아일랜드인이든 미국 토박이이든 사람인 것이다. 이 사람들 위에 레일을 깔고 모래를 덮은 다음 기차는 미끄러지듯 그 위를 달린다. 그들은 정말 좋은 침목이다. 그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침목이 깔리고 기차는 계속 그 위를 달린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철로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맛본다면 다른 사람은 그 밑에 깔리는 불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의 수고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오늘 천 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나] 최근 몇 십 년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신고전파 경제학은 특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결함이 극도로 심화된 이후에야 나타나야 할 인위적 대체물로 본다.

그러나 태초에 시장은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경제사학자들에 따르면, 시장 체제는 인류의 경제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발생 단계부터 거의 항상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 왔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폴라니는 그의 고전적 저작인 『대전환』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으로 흔히 간주되는 영국에서조차 시장의 발생에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해냈음을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유 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부가 꾸준히 개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유지되었다. 애덤 스미스의 ‘단순하고 자연적인 자유’의 개념을 인간 사회에 실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었다. 토지의 사유를 제도화한 인클로저 법들의 조항은 얼마나 복잡하였던가.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료적 통제가 필요하였던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주의 혁명에 맞서 복지 국가 체계를 수립한 비스마르크의 독일, 전후(戰後) 산업 복구 정책을 펼 프랑스,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한 스웨덴, 공기업 부문을 통해 제조업의 발전을 이룬 오스트리아, 국가의 주도로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가 그것이다. <중략>

시장 제도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는 한 나라의 경제 정책 설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던 많은 나라들은 한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것은 ‘잘 작동하는’ 정부 없이 ‘잘 작동하는’ 시장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신고전파와 경제학자들이 믿는 대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진화한다면, 이 옛 공산국가들은 진작 그 같은 혼란에서 빠져나왔어야만 한다. 또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 할 것이다.

[다] 만일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면, 자기 신체와 재산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위대한 존재라면, 왜 그 자유를 버리겠는가? 왜 그 제국을 포기하고 스스로 다른 권력의 지배와 통제 아래로 들어갈 것인가? 그 대답은 명확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물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늘 다른 사람들의 침탈에 노출되어 있는 탓에 그 권리의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다.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왕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평등과 정의를 엄격히 지키지는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재산의 향유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유롭더라도 두려움과 위협이 가득한 상태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통합을 이루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생명, 자유, 토지의 상호 보존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국가를 결집하고 정부 아래로 들어가는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와 관련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중략>

이렇듯 자연 상태에는 온갖 특권이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 계속 머물면 결국 나쁜 조건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한시라도 빨리 사회를 만들려고 줄달음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인간은 확립된 정부의 법 아래로 들어가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처벌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 대신 별도로 임명된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 혹은 공동체가 위임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규칙에 따라 그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정부와 사회 그 자체의 본래의 권리와 기원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 본래의 권리와 기원도 아울러 찾아볼 수가 있다.

[라] 라파엘은 유토피아가 풍족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여섯 시간만 일하는데도 물자가 풍성할 수 있을까? 노는 이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에서는 남녀 모두가 일을 한다. 재산에 기대어 놀고먹는 자들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먹고사는 부랑자나 거지도 없다.

일손이 많으니 일해야 하는 시간은 절로 줄어든다. 심지어 하루 여섯 시간 노동도 너무 많게 느껴질 때도 있다. 노동 인구가 넘쳐 나는 탓이다. 이럴 때 정부는 사람들에게 도로를 고치는 등의 업무를 준다. 그마저도 없을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 버린다. 유토피아에서 일을 하는 목적은 재산을 쌓는 데 있지 않다.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이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마음을 닦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다. 유토피아 인들은 죽도록 일에만 매달리는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긴다. <중략>

나아가, 유토피아에는 돈 자체가 아예 없다. 가장(家長)은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동 창고에서 그냥 가져오면 된다. 사람들은 물자가 항상 남아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남들이 먼저 가져갈까 두려워할 필요보다 많은 물품을 몰래 챙겨 놓는 일이 없다. <중략>

라파엘은 이런 유토피아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말한다. 또한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 즉 ‘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한다. 소설 속에서 라파엘은 말한다.

“사유 재산이 인정되고 모든 것이 돈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한, 진정한 정의나 변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치와 방탕만을 위한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순간, 두려움, 초조, 파로, 잠 못 드는 밤도 역시 사라집니다.”

[마] 보름쯤 지나서 주인이 나를 불렀다. 고구마가 많이 축난다는 것이다. 가마니째 달아 본 무게와 소매로 판 고구마의 무게가 많이 차이 난다고 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덤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내가 기록하고 있는 매장 장부를 보면 고구마는 갑절이 넘는 이윤이 나오고 있었다. 한 주일 뒤에 주인이 또 불렀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저울질할 때 요령껏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 주었다. 한 관씩 표시를 해 둔 작은 막대 저울로 고구마를 달 때 손잡이를 잡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약간만 고구마가 얹힌 쪽으로 누르면 된다는 것이다. <중략>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신분의 차이가 없었다지만 역시 인간 사회에는 계급이 있기 마련이다. 가난은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거짓을 강요받게 만든다. <중략> 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은 돈만 벌지 않고 악을 낳고 퍼뜨리는 악마다. 나는 그래서 그 돈에 복종했고 내 조그만 양심을 속이게 되었다.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이들이었다. 날고구마를 한두 관씩 사다가 찌서 파는 고구마 장수들, 한 끼니를 잇기 위해 한 관씩 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게를 속여야 했다. 고구마 두세 개씩은 속이게 되었다. 그렇게 작은 고구마라면 다섯 개도 속일 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두렵고 떨리며 괴로웠지만 차츰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나도 악마들의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다. <중략>

아무리 훌륭한 일도 정신을 잃고 맹목적으로 끌려가면 모두 악마로 둔갑해 버린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고구마 파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데 한번은 시골 어느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꼬깃꼬깃 접힌 돈을 꺼내더니,

“학생, 아래 장날에 고구마를 사 갔는데, 글썽 정신도 없제. 돈도 안 주고 그냥 가 뿌릿잖아. 일매나 미안튼지 어서 갖다 줘야 된다. 된다 하면서도 이렇게 늦어 부렀대이.”

하며 고구마 한 관 값을 내어 주는 것이었다. 세상이란 또 이렇기도 했다. 돈은 돈을 낳고 그 돈이 쌓이면 악을 낳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장날이면 고구마 가게가 무척 붐빈다. 그러면 서로가 정신을 잃고 사는 쪽도 파는 쪽도 돈을 주고받는 걸 잊을 때가 있다.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속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고구마 한 관 값 때문에 이렇게 며칠 동안 괴로웠다니 참으로 바보스러웠다. 그까짓 거 모른 척 지나가 버려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이득이 될 텐데,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1** 제시문 [가] ~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20점]
- (2) 사유재산과 관련하여 제시문 [다]의 글쓴이와 제시문 [라]의 라파엘이 주장하는 바를 대비하시오. [20점]

**2** 아래 <보기>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마]에 등장하는 ‘나’의 내적 갈등을 분석하시오. [30점]

<보기>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나 상품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우선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물질이 본질적 가치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오히려 수단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도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 전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들 수 있다. 황금만능주의란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나아가 황금만능주의는 상품, 화폐, 자본 등과 같은 물질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숭배(物神崇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물질적 가치의 중시는 인간 소외 현상을 발생시켰다. 인간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 낸 물질이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보기>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잠재 성장률이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총동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잠재 성장률이 5%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 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5%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잠재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을 저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낮춘다. 첫째,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줄어든다. 둘째,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은 노년층이 증가하여 저축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투자가 둔화된다.

E국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국의 청장년층 및 노년층 각각의 연간 1인당 소득 및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표 1>과 같다. 연령층별 연간 1인당 소득과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향후 10년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연령층별 연간 1인당 소득 및 소득 대비 소비 비율

	청장년층	노년층
1인당 소득	200원	50원
소득 대비 소비 비율	50%	200%

2017년 현재 E국의 인구는 청장년층과 노년층 각각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나라는 10년 후 청장년층 인구가 20%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현재와 10년 후 E국의 연간 1인당 소득을 각각 구하시오. [10점]
- (2) 현재와 10년 후 E국의 연간 총소비율을 각각 구하시오. [10점]  
 ※ 총소비율 = 총소비/총소득
- (3) 위에서 도출된 총소비율과 <보기>를 참조하여, 2027년 이후 E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를 전망하시오. [10점]